

# 訓民正音의 制字背景과 易學의 原理

손유석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Study on Creation Background and Divinational Principle of the Hun-Min-Jeong-Eum

You Seok Son, Jung Soo Kang\*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he Hun-Min-Jeong-Eum(訓民正音) has been created under the political purpose that is to unite politics and cultures through a philosophical harmony of the confucianism as well as the Buddhism under the periodical circumstance that includes the change of a dynasty and a revolution in culture. The creating work has been greatly affected by the theoretical divination, that is the confucian ideas of North-Song dynasty which has been highly elaborated in those days. The shape of the characters of the Hun-Min-Jeong-Eum(訓民正音) has been influenced by the ancient letters existing at the time (especially Ga-Rim-To 加臨多), it has been throughly readjusted and recreated based on the philosophy. The consonant uses the Three-Pillars(三才)(○, □, △) in the style of the five elements and each velar-lingual-labial-dental-guttural sounds (牙舌齶齒喉音) is applicable to five elements also a 'o' is equivalent to the heaven, a 'u' to the earth, a 'a' to the man. The vowel uses the five elements of 一(water), 二(wood), 三(fire), 四(metal), 五(five-soil), 六(ten-soil) in the style of the Three-Pillars(三才) of 一, 二, 三 and the first created letters(初出字), and the secondary created letters(再出字) each can be attached to the eight trigrams(八卦). The consonant has 17 letters and the vowel has 11 letters, therefore the total number of the letters is 28. and those are equivalent to the 28 constellation(二十八宿) of the astronomy. Contrary to the underlying principle that has been applied during the time of the creation of the letters, when the consonant and the vowel are used, the consonant refers to the heaven(天), and the vowel refers to the earth(地). a consonant take a part in making a point on the starting place of the pronounce, a vowel take a part in the keeping the energy to the end.

Key words : Hun-Min-Jeong-Eum(訓民正音), theoretical divination, letter, three pillars(三才)

### 서론

邵康節의 『皇極經世書·律呂聲音』의 「聲音唱和圖」를 살펴보면 당시의 時代觀인 유교의 입장에서 불교와 도교의 이론을 통합하면서도 象數學의 심오한 뜻을 펼쳐 세상의 모든 만물에 數와 音을 달고자 하였다<sup>1)</sup>. 그리고, 400여년 후<sup>2)</sup> 조선의 세종대왕은 왕조교체와 문화번혁의 시기에 즈음하여 음양오행의 易學的 이치에 근거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니, 그 「解例本·制字解」

3)의 첫머리에 “천지의 이치는 하나의 음양오행 뿐이니 坤과 乾

- 1) 沈小暉, 『皇極經世書·律呂聲音』와 訓民正音의 正音圖 研究, 서울, 대한 음성학회 제3회 음성학술대회, 1996.  
邵康節은 韻을 天聲이라 하고 聲을 地音이라 하였는데, 즉 하늘과 땅이 어우러져야 소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또 天聲은 天干의 數 10에 일치시켜 10類로 구분하였고, 地音은 地支의 數 12에 일치시켜 12類로 분류하였으며, 10개의 天聲과 12개의 地音에 다시 天의 四象(日月星辰)과 地의 四象(水火土石)을 각각 연계시켜 聲音 단위를 나누었다. 이러한 방식의 연역방식을 통해 30,720이라는 동물과 식물의 全數를 내었고, 17,024라는 동물과 식물의 用數를 내었으며, 89,816,566이라는 동식물의 全數를 내었다.
- 2) 邵雍이 1011-1077년이며 훈민정음 창제가 세종25년 1443년이다.
- 3)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坤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陰陽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一捨陰陽而何之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耳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理既不二 則何得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3/11/04 · 수정 : 2003/12/09 · 채택 : 2004/01/09

사이가 太極이요, 動과 靜의 뒤가 음양이 되나니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무리로서 어찌 음양을 버릴 수가 있으랴. 그러므로 사람의 말소리에 다 음양의 이치가 있으나 오직 사람들이 살피지 못하는 지라. 이제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지혜로 경영하고 힘써서 찾은 것이 아니요, 다만 그 말소리에 따라 그 이치를 다했을 뿐이다. 이치는 둘이 아닌즉 어찌 천지음양과 더불어 그 쓰임을 같이하지 않을 수 있으랴.”라고 하였다. 이는 훈민정음이 온전히 음양오행의 易理論에 부합하여 창제되었고, 모든 사물의音を 표현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易理論이라는 宇宙論의 合理的 法則 아래 얻어진 훈민정음이 갖고 있는 自然律과 宇宙精神에 일치하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동양철학의 합리성과 체계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훈민정음과 그 소리의 연구를 自己修行의 방법이자 宇宙精神實踐의 도구로 삼고자 한다<sup>4)</sup>.

## 본 론

### 1. 訓民正音의 創製背景

훈민정음은 과연 세종의 창작물인가, 훈민정음 이전에는 한자 이외의 글자는 없었던 것일까. 있었다면 과연 어떤 글자들이 있을까. 훈민정음 이전에도 여러 형태의 글자가 있었다. 가까이 는 우선 吏讀가 있었고, 『太白逸史』<sup>5)</sup>에 의하면 神市시대에는 算木이, 蚩尤 때는 鬪目이, 부여시대에는 書算이 있었고, 또 雨書·龍書·鹿圖文 등이 있었으며, 단군 때에는 加臨多<sup>6)</sup>가 있었다고 한다<sup>7)</sup>. 또한 중국주변의 인접국가 가운데 遼는 10세기에, 당구트

족은 11세기에, 여진(金)은 12세기에, 몽고(元)는 13세기에, 安南은 14세기에 각각 고유문자를 창제했고, 조선에 직간접적인 문화적 영향을 미쳐왔다<sup>8)</sup>. 또한 인도의 古代 聖經文字인 梵字 起源說<sup>9)</sup>, 몽고의 八四巴(파스파)文字 起源說<sup>10)</sup>, 일본의 아히루문자 起源說<sup>11)</sup>, 太極起源說<sup>12)</sup>, 古代文字 起源說<sup>13)</sup>, 窓戶象形起源說<sup>14)</sup> 등은 훈민정음 창제이후 많은 문헌적 자료와 추종자들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작이 아닌 옛 글자의 모방이라고도 한다. 또 訓民正音 解例本이나 世宗實錄에도 그런 내용이 보인다<sup>15)</sup>. 사실 새로운 文字를 만들에 있어서 기존의 文字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모방이라면 위의 여러 가지 文字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참고했을까. 또 단순히 모방하여 재정리하는 데에 그쳤던 것일까. 아니면 어떤 사상과 이론을 制字背景으로 삼았던 것일까. 사상과 철학을 제배경으로 삼았다면 과연 어떤 사상과 철학이 背景이 되었을까. 1940년 발견된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를 보면 당시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던 이들의 직접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에 이르기를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象形而倣古篆”이라 하여 正音이 이전의 문자들의 형상을 본따음을 밝혔고,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첫머리에는 오히려 훈민정음이 오직 음양오행의 이치에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 만물의 소리에 부합되는 문자임을 강조하였다<sup>16)</sup>. 결론적으로 훈민정음은 기존의 문자의 형상을 모방

不與天地鬼神 同其用也.”

- 4) 김석득, 한국어연구사(상), 연세출판부, 1975, pp. 20-22.
- 5) 訓民正音 반포(1446년)보다 74년 후인 1520년에 지어진 책으로, 저자는 李頤(字는 井人, 號는 一十堂이며, 단종 3년에 출생하였고, 연산군 4년 文科에 급제함)이다. 『太白逸史·삼일신고·人物篇』, “神市有算木 蚩尤有鬪目 夫餘有書算 賈勒 二年 加臨多.”
- 6) 반재원, 한글과 천문, 서울, 한배달, pp. 13-18.  
加臨多文: 『太白逸史』에 “단군시대에 신지의 篆文 즉, 神篆이 있었다”고 하였다. 단군 3세 嘉勒 2년에 三郎 乙普勒(삼랑은 관직명)에게 명하여 정음 38자를 지었으며 이를 ‘가림다문’이라고 하였다. 가림다문 또한 평지들출된 것이 아니라 신시 때의 산목, 서산, 푸전목, 紫府 때의 雨辟, 伏羲 때의 龍書 등을 참고, 수정보완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단기 고사에는 國文正音을 지었다고 했으며 황해도 백악 마한촌에 국문정음 비문이 있다고 했다. 그 글자의 형상은 훈민정음의 글자꼴과 흡사하다. 다음은 다소 변형된 가림다문이다. ‘가림다’란 가리다란 우리말을 한문으로 적은 이두이다. 음차한 것이므로 ‘加臨’이란 한자 자체에는 아무런 뜻도 없다. 즉 가린 땅이란 뜻이며, 가림다문은 가린 땅의 글이라는 뜻으로 보고 있다. 다는 따, 따는 땅을 뜻한다. 또 음달, 양달의 달도 땅이 뜻이며 하늘의 달도 땅이라는 뜻이다. 허공에 ‘달려’있다고 해서 달이 아니다. 동사가 명사보다 먼저 생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가림다문은 금의 이름을 따서 ‘가림다’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가리마의 어원처럼 가운데, 가장중심이 되는 땅인 배달의 글자라는 뜻도 된다. 또 가림다를 遷地文이라 하여 선택한 땅의 글이라고도 한다. 또 그전에 있던 산목·화서·서산 등 여러 글자 중에서 가려낸 글자라고 하여 ‘가리다’ 정음이라 했다고도 하며, 한자와 혼용하면서 이것이 토씨 따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加臨이라고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또 목속손 교수에 의하면 가림다란 원래 珊修加臨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이것이 여진족의 발음으로 산수그림토→산수그리토→산스크리트가 된 것이라고 하였다. 가림다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그곳에 맞게 변형된 예가 많으니 아랍 문자도 조금만 유의해 보면 우리 한글이 변형된 글자이며 자음들을 풀어쓰기 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 7) 반재원, 한글과 천문, 서울, 한배달, 2001, p. 1.

- 8) 감신항, 훈민정음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p. 4.
- 9) 成俔의 『康齊叢話』(서울, 대양서적간, 1978, p. 256)에서 주장.
- 10) 이익의 『성호사설』(서울, 문광서림, 1958, p. 141)에서 주장.
- 11) 장봉선, 『가림토와 한글』, 한글문화사 대표  
한글과 유사하여 한글의 원형을迎辨을 미친 문자 중에서도 일본 왕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대마도의 아히루문자(阿比留文字)는 훈민정음과 그 글자꼴이 너무나 유사하다. 그래서 그들은 아히루 문자를 아버지(親)라 하고 한글을 아들(子)이라 하여 일본의 아히루 문자와 우리의 한글을 親子の 관계라 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히루 문자는 8세기 초의 문자이고 훈민정음은 15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세신궁에 보관되어 있는 神鏡의 뒷면에 한글과 너무나 비슷한 아히루 문자가 새겨져 있다. 나가노(中野裕通)는 ‘이 아히루 문자가 조선으로 건너가서 諺文의 원형이 되었다’고 했으며, 아고(吾郷清浩)는 ‘아히루 문자와 한글과는 친자관계라는 글에서 ‘아히루 문자는 대마도의 卜部阿比留家가 天兒室根命의 直傳으로 秘藏保存해 온, 한글보다 더 오래된 古代和字이다’라고 했다. 나중에는 결국 고조선의 가림다문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아히루 문자이며 ‘일본의 아히루 문자나 한글은 바로 단군조선 때 만든 가림다문이다’라고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였다.
- 12) 魚允迪의 『朝鮮文字母講解』에서 주장(최현배, 고친 한글갈, 서울, 정음사, 1971, pp. 331-334).
- 13) 권진규, 고대조선문의 유무, 서울, 민정서관, 1977, pp. 12-16.
- 14) P. Andre의 주장(최현배, 고친 한글갈, 서울, 정음사, 1971, p. 615.)
- 15) 장인지의 解例本 序文에서 ‘象形而倣古篆’이라 하여 글자의 형상이 옛 篆字를 본따고 한 구절이 있다. 또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25년 1월 조에(12월 30일) ‘是月上親製諺文 二十八字其字倣古篆 分爲初終聲…’이라 하여 ‘이 달에 상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제작하였는데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 ‘諺文皆本古字非新字也’라 하여 언문을 모두 옛 글자에 근본하였으며 새로운 글자가 아니라고 했고, 또 세종 26년 2월 20일에 집현전 부제학 崔萬里的 상소문에도 ‘字形倣倣古之篆文用音合字盡反於古… 豈不有倣於事大慕華’라 하여 ‘글자의 형태가 비록 옛 篆文을 모방하고 글자가 함해져서 소리를 내지만 모두 옛것과 반대이니… 어찌 事大慕華에 부끄럽지 않으리오’라고 했는가 하면 일본의 比呂 박사도 옛 篆字를 바탕으로 하여 訓民正音을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 16)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坤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陰陽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一捨陰陽而何之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耳 今正音之作 初非習而力索 但因其聲音而經其理而已 理既不二 則何得不與天地鬼神 同其用也.

하였으나 그러한 문자를 완전히 철학적으로 재해석하여 易理的인 입장에서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자의 창제에 있어서는 당시의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조선 사회는 왕조교체와 불교의 탄압, 유교라는 새로운 國敎의 敎化에 힘을 쓰고 있는 커다란 변혁기였다. 특히 불교는 아직까지도 대다수 백성들의 실질적인 종교였고 왕조는 이를 무시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한글을 불경의 포교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또한 당시의 유교는 宋代의 고도로 발달하였던 유교철학을 말하는 것으로 北宋代에 이르러 儒佛仙三敎를 융합하여 이론적 체계를 잡았는데 근본적으로는 유교의 철학적, 심리학적 이치를 불교와 仙敎의 사상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특히 易經說을 정리, 발전시켜 太極說의 기반으로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훈민정음 창제에 철학적 기반이 되었던 배경에는 유교를 비롯하여 불교와 도교의 영향도 무척 컸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sup>17)</sup>.

## 2. 訓民正音 實意

### 1) 初聲 十七字 各意

#### (1) ㄱ

혀의 뿌리가 뒤로 목구멍을 지그시 닫았다가 김(聲氣)을 어금니 쪽으로 내보내는 데서 나는 소리이니, 목구멍을 닫은 혀의 뿌리 모양을 그려서 만든 實象形文字이다. 牙音 制字의 기본형이며, 口腔五行으로는 木에 속한다.

●역학적 의미 : ㄱ이 발음되는 어금니 부분은 구강내의 五行으로는 木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그곳에서 나는 어금니는 그 뿌리가 얽히고 길어서 마치 나무와 같다는 것이다. 이 ㄱ字의 모양을 조용히 관찰하여 보면, 어금니의 斷面 즉 咀嚼面과 그 측면을 그린 것 같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드리워 垂直的으로 내려보내는 것 같다. 이와 같이 관찰할 때 ㄱ은 마치 易에서 말하는 '만물이 資賴하여 비릇는 乾元'과도 같아서, 하늘에서 생명의 씨가 땅에 내려오매 이것은 垂直的인 사랑으로서 乾卦의 네가지 德 가운데 '元'의 德을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一元의 氣가 두루 흘러 다하지 않고, 四時의 운행이 돌고 돌아 끝이 없는' 원리도 이 ㄱ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말에 가락(奇異)·거룩(聖·偉)·검(神)·곧다(直)·굳다(固)··· 등이 모두 ㄱ으로 시작되는 일은 이런 이치와 유관하다 하겠다.

#### (2) ㅋ

ㄱ을 叢書하면 ㅋ이 되듯이 ㄱ을 連書하면 ㅋ이 된다. 발음 부위와 발음형태가 ㄱ과 같으나, 다만 그 소리의 기운이 거세므로 ㄱ위에 ㄱ하나라를 더하여 木이 커진 뜻을 나타낸 것이다. 즉, 牙音의 爆發形이다.

●역학적 의미 : ㅋ은 ㄱ 위에 다시 ㄱ을 더하여 만든 만큼 盛裝·增大·倍加 등의 뜻이 있다고 보겠다. 우리말에 크다(巨·大)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ㅋ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런 이치와 유관하다.

17) 세종 원년(1419)의 3년전 明의 三大典인 四書大典·五經大典·性理大典이 편찬되어 전래되었는데, 이중 性理大典에는 太極圖·太極圖說·皇極經世書·易學啓蒙·律呂新書 등이 수록되어 있고 세종 자신도 이에 깊은 관심이 있어 집현전에 집중 연구토록 하였다.

#### (3) ㅇ

ㅇ은 喉形을 그린 것이고, ㆍ는 목구멍에서 김(聲氣)이 목젓 부를 통과하여 鼻腔으로 나가는 동시에 비로소 無陰에서 有音으로 [ㅇ]소리(鼻音)가 나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喉音에서 牙音으로 옮겨가는 중간과정을 나타내니 ㆍ은 마치 목젓 모양을 본뜬 것 같고, 그것이 나타내는 뜻은 장차 자라서 牙音 ㄱ이 될 싹(萌芽)을 표시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ㅇ도 역시 牙音에 속하며 ㄱ에 先行한다. 正音 初聲의 第 1字이다.

●역학적 의미 : ㅇ은 喉音인 ㅁ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발음되는 부위가 이미 목구멍을 떠나서 어금니로 옮겨오는 동시에, 나무가 물에서 나서 형상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니, 마치 연한 새싹이 물에서 나와서 아직도 물기가 많지만 그래도 나무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牙音에 속한다. 그러나 ㅇ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牙音制字의 始初가 되지 않고, ㅇ이 더욱 완실하여 견고하게 바탕을 이룬 것을 나타내는 上記 ㄱ이 牙音制字 기본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ㅁ이 공허하여 열(+)의 뜻이 있다면 ㅇ은 열에서 갓난 하나(-)의 뜻이 있다고 보겠다. 易에서는 '하나가 열이 없으면 體가 없고, 열이 하나가 없으면 用이 없다'고 하였으니, 열과 하나는 실로 서로 體도 되고 用도 되어 一歸體라고 하겠다.

#### (4) ㆁ

발음부위가 ㄴ과 같고 소리가 약간 거세기 때문에 ㄴ위에 一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基底에 實象形文字인 ㄴ이 깔려 있으므로 위에 一을 加畫한 叢意의 뜻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 볼 때에는 역시 象形글자임에 틀림없다. 舌音에 속한다.

●역학적 의미 : ㆁ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양이 무엇인가를 담아 두는 옆 터진 쪼갯 또는 오쟁이 모양으로 옆으로 터진 그릇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말에 담는다·닫는다·둔다 등의 말이 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런 이치와 유관하다.

#### (5) ㄹ

혀끝이 上顎에 밀착하지 않고 전후로 진동하여 나는 소리니, 혀를 상징하는 ㄴ위에 전후 진동을 나타내는 ㄹ을 加畫하여 만든 것이다. 半舌音이라 하며, 半音初聲 둘 중의 하나다. 또한, ㄹ은 혀의 끝을 앞뒤로 굴림으로써 나는 소리인바 下半身인 舌音 ㄴ위에 떨리고 뜻을 표하는 ㄹ를 덧붙여 그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半舌音이라 한다.

●역학적 의미 : 글자 모양이 앞뒤로 흔들거려서 불안정·동요·전율 등을 표시한다고 보겠다. 우리말의 라발·랄라라·흔들다·떨다 등에 ㄹ이 들어 있음은 이런 이치와 유관하다.

#### (6) ㄺ

ㄷ을 叢書하면 ㄺ이 되듯이 ㄷ을 連書 密著하면 ㄺ이 된다. 닫혔던 ㄷ이 터져 올라감을 나타내는 爆發形 舌音이다.

●역학적 의미 : ㄺ은 ㄷ에 비하여 그 소리가 거세므로 ㄷ위에 다시 ㄷ을 겹쳐 加畫하여 점차 위로 터져 올라감을 나타내니, 우리말에 터진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ㄺ으로 시작되는 것도 이런 이치와 유관하다.

#### (7) ㄴ

ㄱ의 反對形인 ㄴ이다. 혀의 끝이 上顎에 密著하고 김(聲氣)이 鼻腔으로 나갈 때에 나는 소리[n](鼻音)이므로, 그 形狀을 정리하여 ㄴ과 같이 方正하게 그린 것이다. 舌音制字의 기본형이

며, 實象形文字이다. 口腔五行으로는 火에 속한다.

●역학적 의의 : ㄴ이 발음되는 혀끝 부위는 구강내 五行으로는 火에 해당한다. 혀끝은 예리하여 맛과 소리를 잘 분별하고, 항상 뜻대로 움직이기를 잘하는 것이 마치 불이 '너울너울하여 드날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舌音에 속하고 四時로는 여름에, 방위로는 南에, 五聲으로는 徵調에 해당한다. ㄱ이 어금니의 斷側面을 나타낸다면 ㄴ은 혀끝의 예리함을 나타내고, ㄱ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려주는 것이라면 ㄴ은 그것을 순히 받드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易에 '至極하다 坤元이며, 만물이 다 그 사람을 힘입어 태어나니 이에 順하게 하늘을 받든다'고 하였으니, ㄴ은 이 순하게 하늘을 받드는 坤元인 동시에 乾卦의 四德으로는 '亨'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元'에서 내려준 仁을 '亨'에서 정성을 다하여 받들어 올리기 때문이다. 나다(生)·날다(飛)·너끈하다·눕다·눅다(融)·느리다 등의 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것도 이런 이치와 유관하다.

(8) ㅂ

다물었던 입술을 벌리며 김(聲氣)을 코로 보내지 말고 입으로 약간 거세게 내보내면 ㅂ소리가 난다. 그러므로 ㅂ의 左右 두 縱畫을 위로 延長하여 입을 약간 벌린 形狀을 나타낸 것이다. 基底에는 基本象形이 깔려 있으므로, 역시 象形文字이며 唇音에 속한다.

●역학적 의의 : 입을 다물었다가 열면 ㅂ에서 ㅅ으로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가. ㅂ은 젖을 의미하는 동시에 엄마의 평안과 자애심을 상징하고, ㅅ은 밤을 의미하는 동시에 아빠의 엄격과 감투력을 상징한다. 우리말에도 '맘마'와 '엄마'는 공통성이 있고, '빠빠'와 '아빠'는 거의 동의어이다. 그리고 갓난아의 식품을 '맘마'라 하고 어린이의 음식을 '빠빠'라 하는 것도 그러하다. 易의 需卦에 '마시고 먹고 잔치하여 즐긴다'고 한 것이 평화와 행복의 상징인 ㅂ이라면, 訟卦나 師卦의 '진실로 숨막힐 듯 하며 걱정스러운 것'과 '이것으로 天下를 害毒한다'고 한 것은 엄격과 감투의 상징인 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의 ㅂ·ㅅ·ㅆ·ㅈ·ㅊ·ㅅ·ㅈ·ㅊ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ㅂ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런 이치와 유관하다.

(9) ㅅ

다물었던 입술을 ㅂ의 경우보다 더욱 거세게 폭발적으로 벌리고 입김을 힘차게 내보내면 ㅅ소리가 난다. 그러므로, 이 ㅅ은 ㅂ의 上下 橫畫을 좌우로 연장하여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역시 象形字이며, 唇音에 속함은 물론이다. ㅅ을 발음하려면 다물었던 입술을 열음과 동시에 숨을 폭발적으로 강력히 퍼뜨려야 하므로 ㅂ자의 상하 橫획을 좌우로 늘려 냈으니 ㅂ과 같이 唇音에 속한다.

●역학적 의의 : ㅅ이 ㅂ을 위로 벌려내어 전개·개장의 뜻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ㅅ은 ㅂ을 좌우로 피어내어 발전·발산의 뜻을 표시한다. '꽃이 핀다', '민족문화를 피어낸다', '전국에 퍼진다' 등의 피어내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한결같이 ㅅ으로 시작되는 것도 이런 이치와 유관하다.

(10) ㅁ

입술을 다물고 김(聲氣)을 鼻腔으로 내보내어 나는 소리[m] (鼻音)이므로 唇音이라 한다. 입을 다문 形狀을 본떠 方正하게 정

리하여 만든 것이다.

●역학적 의의 : 제자해에 '입술은 모나고 숨하였으니 ㅅ이다. 소리가 머금고 널리 들리는 것은 마치 흙(땅)이 만물을 함축하여 넓고 크고 같다'하고, '입과 입술은 脾臟에 매었다'하였다. ㅅ를 나타내는 坤卦에도 '坤이 두터이 만물을 실음은 德이 무한함에 합당하다'하여 ㅅ에 해당하는 우리의 입술은 우리가 먹어서 영양이 될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을 용납하여 우리 육체를 길러주는 두터운 德이 있는 것이다. ㅂ과 ㅅ은 우리의 육체를 길러주는 맘마와 빠빠를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의 정신을 키워주는 엄마와 아빠일 수도 있는 것이다. 과연 唇音은 모든 언어의 시초이며 근원이 된다는 것은 갓난아이가 말을 배울 때에 ㅂ(엄)소리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아도 알만 하다. 이것은 또한 ㅅ가 오행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심적인 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우리말에 마신다·먹는다·머금다(숨)·문다(咬) 등이 ㅅ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런 이치와 유관하다.

(11) ㅆ

ㅂ과 같은 부위에서 같은 양식으로 발음하되, 혀끝을 일단 硬口蓋에 대었다가 떼는데서 나는 口蓋音으로서 ㅂ보다 약간 거세게 들린다. ㅅ위에 一을 더하여 만들었으므로, 基底의 ㅅ에 따라 역시 象形字가 된다.

●역학적 의의 : ㅅ은 본시 이의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을 본떠서 만든 字이지만, 이것은 또한 생명의 새싹이 날카롭게 위를 향하여 자라나는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ㅅ의 字形을 살펴보면 이 생명의 새싹이 무엇인가 어려운 장애에 부딪쳐 그 무거운 압력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엎히고 쉬어서 고심참담하는 상을 볼 수 있다. 마치 易의 屯卦에 '天地가 비로소 사귀는 창조적 처음에는 생명이 험한 가운데서 움직여 나가기 어려운 것과도 같고', 우리말에 자란다·전다(轉)·지지다 등이 ㅅ으로 시작됨은 이런 이치와 유관하다.

(12) ㅈ

ㅂ과 같은 部位에서 같은 形態로 發音되나 ㅅ보다 훨씬 거세게 들린다. 그러므로, ㅅ위에 縱으로 一을 더하여 위로 치솟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역학적 의의 : ㅈ이 머무는 듯 주춤거려 遲回 盤桓하는 생명의 수난이라면 ㅈ은 그 고난을 통쾌하게 이겨내고 패자를 부르며 하늘길을 향하여 邁進하는 大畜卦 上九爻의 '하늘길을 메었으니 道가 크게 行함'을 상기시키는 象이라 하겠다. 우리말에 차다(滿)·참(眞)·쳐든다·치솟다 등이 다 ㅈ으로 시작되는 되는 것은 이런 이치와 유관하다.

(13) ㅊ

혀끝과 앞니의 硬口蓋의 사이에서 나는 摩擦音이다. 아래 앞니의 뾰족한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漢字의 齒字 구성과 흡사하다. 口腔五行으로는 金에 속하고 齒音制字의 基本形이며, 實象形文字이다. 모양의 立함은 人을 상징한다.

●역학적 의의 : 제자해에 '이는 굳고 끊으니 五行의 金이라. 소리가 부서져서 鍛鍊되는 것과 같다'고, 이어서 時節로는 가을이요, 方位로는 西요, 五聲으로는 商調에 해당한다. 여기서 ㅊ의 字形을 살펴보면 마치 사람이 두다리로 서 있는 것 같은 象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란, 만물이 다 결실하여 제 올바른 모습을 드러내어 완전히 성숙하고 완전히 성도하는 가을과 같은 존재임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이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樂調의 '商'과 같이 商量하고 思惟하여 올바른 견고 완실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말의 스(立)가 한자의 츠(立)와 같이 땅 위에 똑바로 서 있는 형상을 그린 것도 재미있거니와 사람·삼·숨·새(新)·씩(芽)·씨(仁·核)·숫는다(滿)·싱싱하다·씩씩하다 등의 말이 다 스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 사이 가을 쇠 삼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무릇 생명적이고 발랄하며 약동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짐작하게 한다.

(14) △

사이 스 위에 一을 더하여 만든데 대하여, △은 스의 아래에 一을 더하여 만들었다. 그 소리는 스과 ○과의 中間音으로서 [z. j], [r] 등으로 표시되는 音價를 가진 字이다. 半齒音이며, 半音初聲 둘 中의 하나다. 또한, △은 齒音 스아래에 一을 덧붙여 그어서 만들었다. 上半身이 사이므로 半齒音이라 하며 그 소리는 ○과 스과의 中間音이다. 스보다 소리가 거세므로 획을 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一을 스의 아래에 더하였다.

●역학적 의미 : 삼각형이기 때문에 한자의 △(私)字와 같이 公正無私하지 못하고 不公平·不確固·便辟 등의 뜻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말에 여우(또는 여수, 狐)·가아(또는 갓, 邊)·가을(또는 가을, 秋)·마을(또는 마술, 村)·가위(또는 가세, ?) 등은 지금도 △대신 ○과 사이 병행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15) ㅎ

소리가 없는 ○에서 歎息 소리가 피어나는 ㅎ에 이르는 중간과정에 ㅎ이 있다. ○보다 약간의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에 ○위에 一을 더하여 만들었으니 역시 喉音에 속하나, 현재는 쓰이지 않으므로 상술한 △과 함께 死字라 하겠다.

●역학적 의미 : ㅎ도 목구멍에서 나오는 빈소리 ○위에 약간의 저항인 一을 만나 체하고 막혀 그 소리가 이룰 듯 말 듯 한 소리지만, 그래도 ○이 워낙 聲門을 열어 놓아 위 아래로 통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ㅎ도 비교적 용이하게 음질을 이뤄서 ○에서 ㅎ에 이르는 중간과정을 이룬다고 보겠다.

(16) ㅎ

소리가 ㅎ보다 거세므로 ㅎ위에 縱短楔畫를 덧붙여 만들었으니 爆發形 喉音이다.

●역학적 의미 : 이것은 마치 사이 스의 장애를 극복하고 ㅈ으로 뚫고 나가 승리하는 것과 방불하다 하겠다. 우리말에 하나·하늘·하다(多·大)·후유(歎息聲) 등이 다 ㅎ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런 이치와 유관하다.

(17) ○

목구멍의 形狀을 본떠서 만들었으므로 喉音이다. 소리가 없으므로 初聲에만 쓰이고, 現在는 終聲(받침)에는 쓰이지 않는다. 終聲에 이 字를 쓰는 것은 ○字의 誤用이니 주의를 요한다. 正音 初聲의 第 10字이다. 口腔五行으로 水에 속하고, 喉音制字의 기본형이며, 모양이 둥근 것이 天을 상징한다.

●역학적 의미 : ○은 喉音中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며 모든 初聲의 근본이라고 하겠다. 喉音은 모든 발음기관 가운데서 가장

깊고 가장 윤택하므로 口腔五行으로는 水에 해당한다. 四時로는 겨울이요, 方位로는 北이며, 五聲으로는 羽調이다. 소리가 비고 상하가 걸림없이 통하는 것은 마치 물속이 비고 맑아서 흘러 통하는 이치와 같다고 한다. 구강내에서 水에 해당하는 목구멍을 하늘이라고 한다면 土에 해당하는 입술은 의심할 것도 없이 땅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목구멍과 입술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 上記 ㅁ이 方正을 의미하듯이 ○은 圓神을 의미한다. ㅁ은 유한성을 말하고 ○은 무한성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무한성의 상징은 목구멍은 하늘이요, 유한성의 상징은 입술은 땅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이 우리의 머리를 상징한다면 ㅁ은 우리의 배를 상징한다. 또 ○은 空을 의미한다. 數로는 十에 해당한다. ○이 十이라면 ○에서 ㅍ트기 시작한 ○은 一일시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물기운속에서 나무의 ㅍ트기 시작하니 五行相生의 「水生木」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 ○은 그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비어있어 기운이 소리없이 통할 뿐이니 아무 작용도 없는 즉 to be일 뿐이고, ㅎ은 그 소리가 훨씬 위에서 감격적으로 터져 나와 크게 작용을 하니 to do라고 생각된다. 우리말에 '이다는 ○으로, '하다'는 ㅎ으로 시작되는 것도 이런 이치와 유관하다<sup>18)</sup>.

2) 初聲 十七字 總意

이와 같이 17初聲(子音)에 대한 각각의 발생기전과 역학적 의미를 알아보았으며 각각을 發聲位置와 五行을 말미암아 분류하면, ㄱ·ㅋ·ㆁ은 牙音으로 어금니가 錯雜하고 여무지며 소리는 나무가 물에서 나뉘어 형태가 있음과 같으므로 木에 속하고, ㄴ·ㄷ·ㄹ·ㅌ은 舌音으로 혀가 날카롭고 움직이며 소리가 구르고 날림은 불의 이글거려 퍼지며 활활 나무껍과 같으므로 火에 속하고, ㅁ·ㅂ·ㅍ은 唇音으로 입술이 모나고 합해지며 소리가 머금고 넓은 땅이 넓고 푼과 같으므로 土에 속하고, ㅅ·ㅆ·ㅊ은 齒音으로 이가 단단하고 꿰니 소리가 부스러지고 걸림은 쇠의 부스러기가 가루이면서 단련되어 쇠덩이가 되는 것과 같으므로 金에 속하며, ㅇ·ㅎ은 喉音으로 목구멍이 깊고 젓어있으며 소리가 비고 통함은 물의 虛明하고 흐름과 같으므로 水에 배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물은 만물을 낳는 근원이요, 불은 만물을 이루는 작용이기 때문에 오행중에서도 水와 火가 크다. 목구멍은 이에 소리를 내는 門이요, 혀는 이에 소리를 分辨하는 舌(官)이므로 五音중에서도 목구멍 소리와 혀의 소리가 主가 된다. 목구멍은 가장 뒤에 있고 어금니는 그 다음에 있는데, 北과 東의 방위요, 혀와 이가 그 다음인데 南과 西의 방위요, 입술은 끝에 있는데, 土는 일정한 방위가 없이 四季에 불어 왕성하다는 뜻이다<sup>19)</sup>. 이로써 初聲은 스스로 陰陽과 五行, 方位, 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訓民正音 서문에 나오는 初聲의 순서를 오늘날과는 달리 五行相生의 순서인 木 火 土 金 水 즉, 木(ㄱㅋㅇ), 火(ㄷㅌㄴ), 土(ㅁㅂㅍ), 金(ㅅㅆㅊ), 水(ㅇㅎㅇ), ㄹ, △의 순서로 나열했던 것이다. 여기서 ㄹ과 △는 異體字로 가획한 뜻이 없어서 맨 뒤에

18) 이장호, 訓民正音의 구조원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5.  
이장호, 제삼의 역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반재원, 한글과 천문, 서울, 한배달, 2001. 역음.  
19) 강신항, 訓民正音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pp. 99-100. 『訓民正音·諸字解』

따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五行으로 분류된 각각의 初聲을 十二地支에 배당해 보면, 우선 木에 속하는 寅卯辰은 ㄱㅋㅇ에 배당되며, 火에 속하는 巳午未는 ㄷㅌㄴ에 배당되며, 土는 ㅂㅍㅁ에 배당되며, 金에 속하는 申酉戌은 ㅅㅆㅈ에 배당되며, 水에 속하는 亥子丑은 ㅇㅎㅇ에 배당됨을 알 수 있다. 이에 初聲을 하나 하나 十二地支에 맞추어 보기 위해 「制字解」를 보면 ㅇ은 萌芽生水라 하여 물에서 싹이 트는 새싹의 여린 형상이라 했으며, ㄱ은 나무의 바탕을 이룸이며 ㅋ은 나무가 무성히 자람이요, ㆁ은 나무가 늙어 굳센 형상이라 하였다<sup>20)</sup>. 즉 글자의 획을 더함에 따라 소리도 거세어 지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ㅋ은 발음이 거센 형상이니 나무가 무성하고 싹싹하게 자라는 뜻을 지닌 陽木인 寅의 자리에 해당되고, ㆁ은 ㅋ보다 발음이 덜 거세므로 딱잎이 돌아나서 자라기 시작하는 陰木인 卯의 자리에 배당이 된다. 그리고, ㅇ은 위로 오르는 기운을 조절 조화시키는 성질을 지닌 辰의 자리에 배당된다. 그러므로 ㅋ은 寅, ㆁ은 卯, ㅇ은 辰의 자리에 배당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ㄷㅌㄴ을 地支의 자리에 배속시켜보자. ㅌ은 발음이 가장 거세므로 陽火인 巳의 성질에 해당되어 巳의 자리에 배당되며, ㄷ은 발음이 덜 거세므로 陰火인 午의 자리에 배당된다. 따라서 ㄴ은 최대한 분열된 불을 통일 조화시키는 뜻을 지닌 未의 자리에 오게 된다. 또 ㅅㅆㅈ의 자리를 보면 가장 발음이 거센 ㅅ이 陽金의 자리인 申의 위치에 해당되며 ㅆ은 ㅅ보다 발음이 덜 거세므로 陰金인 酉의 자리에 오게 된다. ㅈ은 역시 무한히 분산한 陽氣를 모아서 통일 조절하는 戌의 성질에 해당되어 戌의 자리에 오게 된다. 그리고 ㅎ은 발음이 가장 거세므로 陽水인 亥의 자리에 오게되며 ㅇ은 陰水인 子の 자리에 오며 ㅇ은 水氣를 木氣로 전도해주는 丑의 자리에 오게 된다. 따라서 입술소리도 같은 원리에 의하여 ㅂㅍㅁ의 순서로 자리가 정해지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訓民正音 解例本에 初聲의 순서가 木→火→土→金→水의 순서에 의해 ㄱㅋㅇ, ㄷㅌㄴ, ㅂㅍㅁ, ㅅㅆㅈ, ㅇㅎㅇ, ㄹ, ㅁ의 순서로 나열시킨 이유가 바로 洛書의 원리를 初聲 제자의 또 다른 철학적인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初聲과 五行十二地支 배속

五行	木	火	土	金	水
地支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初聲	ㄱ ㅋ ㆁ	ㄷ ㅌ ㄴ	ㅂ ㅍ ㅁ	ㅅ ㅆ ㅈ	ㅇ ㅎ ㅇ

한편, 初聲 중에서 加劃한 글자 ㅋ ㅌ와 ㅎ ㅇ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같이 획(-)을 더했다고 했으면서도 ㄱ ㄷ에는 ㅋ ㅌ으로 획(-)을 그었고 ㅅ과 ㅇ에는 ㅆ ㅇ으로 획(-)이 아닌 角點(■)으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初聲 중 ㅅ, ㅌ, ㅎ, ㅋ은 모두 加劃한 것이지만 [그림1]의 二十八宿에 배당된 ㅋ ㅌ, ㅎ ㅇ의 위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ㅎ과 ㅅ은 二十八宿 天門 方角圖에서 天門의 자리에 위치하므로 하늘(·)을 더해야 할 것이지만 初

聲은 어디까지나 그 근본이 地支(땅)에 해당되는 글자이므로 하늘(·)이 아닌 땅(■)을 더한 것이며 ㅌ과 ㅋ은 地戶의 자리에 위치하므로 당연히 -(땅)을 더하였다. 즉 中聲 11자 모두가 陽(10運)에 해당되므로 하늘을 뜻하는 원점(·)으로 표시한 것처럼 初聲 중 ㅎ ㅅ도 하늘의 권역인 天門의 자리에 해당되므로 ㅎ ㅅ으로 ·으로 加點을 해야 할 것이지만 비록 天門의 자리에 해당되는 글자라 하더라도 그 근본은 어디까지나 天干이 아닌 地支인 陰에 해당되는 初聲이므로 ㅋ ㅌ의 가획(-)과 구분하여 땅을 상징하는 각점(■)으로 표시하였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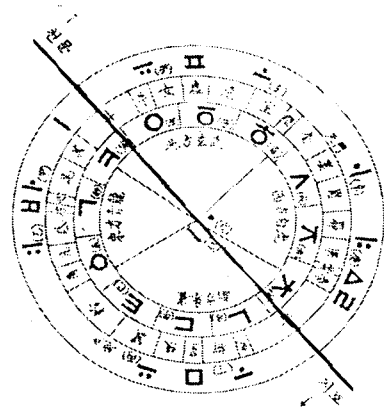


그림 1. 28수에 배당된 ㅋ ㅌ ㅎ ㅇ의 위치

3) 中聲 十一字 各意

(1) ·

허를 뒤쪽으로 오그리고 목구멍의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이다. 모든 中聲의 근원이며, 밝은 소리에 속한다. 모양이 彈丸과 같이 둥근 것은 天을 象徵한 것이다. 天이 彈丸 같다 함은 우리의 心象에 의한 것이므로, 初聲 ㅇ이 實象形文字임에 대하여 中聲 ·는 意象形文字라 하겠다. 現在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呑’字의 中聲 ·는 제자해에 ‘·는 허가 오그라지고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구에서 열린 것이다.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 다’라고 하였다.

●역학적 의미: 喉部는 口腔五行의 水에 해당하고, 水는 또한 만물생성의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하늘과 같다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水에서 만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여 ‘天關於子’, 즉 하늘이 구에서 열린다고 하였으니, 十二支 중에서 子는 一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하늘을 그릴 때에 初聲에서는 ㅇ과 같이 둥근 고리를 그리고, 中聲에서는 ·와 같이 둥근 점을 그렸으니, 이것이 또한 좋은 대조라고 생각된다.

(2) -

허를 약간 뒤로하여 平平한 형태로 하고, 口腔의 不深不淺한 위치에서 발음되는 소리이다. 어두운 소리에 속한다. 形狀이 평평한 것은 地를 상징한 것이다. 地가 평평하다 함은 우리의 心象에 의한 것이므로, 初聲 ㅁ이 實象形임에 비하여 中聲 -는 意象形이다. ·가 목구멍의 깊은 부위에서 나서 하늘이라면 -는 그 다음의 깊지도 알지도 않은 데서 나서 땅이라고 할 수 있다.

20) ㅇ 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 尚多水氣也 ㄱ 木之性質 ㅋ 木之成長 ㆁ 木之老壯 故至此乃 皆取象於牙也.

21) 반재원, 한글과 천문, 서울, 한배달, 2001, pp. 64-65.

●역학적 의의 : 一는 공평과 평균을 의미한다. 계급과 인종과 피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동권임을 주장한다. 음양 오행의 方位生成數로는 地十戌土의 數이고, 河圖로는 十土이며, 干支로는 己丑에 해당한다.

(3) 丨

혀를 뒤로하지 않고 口腔의 가장 앞쪽, 즉 얇은 부위에서 발음된다. 形狀이 위치되어 있는 것은 人을 상징한 것이다. 人이 위치했다 함은 역시 우리의 心象에 의한 것이므로, 初聲 ㅅ이 實象 形인데 비하여 中聲 丨는 意象形이다. 丨는 혀를 뒤로 오그리지 않고 구강의 얇은 부위에서 나는 소리다. 제자해에 '丨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고 소리가 얇으니 사람이 脣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고, '모양이 선 것은 사람을 본 뜬 것이라'하였다.

●역학적 의의 : 丨의 字形을 살펴볼 때 丨는 머리를 위에 두고 발을 아래에 두어 직립하여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늘을 이고 땅에 서서 위로는 하늘의 중심에 통하고 아래로는 땅의 중심에 사무쳐서 철두철미 수직으로 서 있는 인간이다. 나무도 사람과 같이 직립은 하였으나 이것은 땅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하늘에 뿌리박은 것과는 다르다. 기본 中聲의 하나인 丨는 당당히 사람을 의미한다. 실지로 우리말에서는 '이 사람'을 '이 이'라 하고 '저 사람'을 '저 이'라 한다. 말로 보아도 丨는 사람이다.

(4) 一 丨 丨

一과 丨는 天을 상징하는 一에서 나와서 一闊一闊하니 밝은 소리요, 丨과 丨는 地를 상징하는 丨에서 나와서 丨闊一闊하니 어두운 소리이다. 一과 丨는 天地의 初交를 의미하고, 丨와 丨는 天人의 初交를 의미한다.

(5) ㄱ ㅅ ㅈ

이것은 人을 상징하는 丨를 편의상 일점으로 축약하여 그 점 一을 一 丨 丨의 원점 옆에 덧붙여서 天地 또는 天人의 再交를 나타내는 동시에, 天地의 작용이 사물에 발하되 인간의 완성을 기다려서 이룬다는 유교철학의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一 丨 丨가 初交요 初生이요 初出이라면, ㄱ ㅅ ㅈ는 그 再交요 再生이요 再出을 意味한다. 전자는 出生이요 開物이며, 후자는 長成이요 成務이다.

4) 中聲 十一字 總意

一 丨 아래의 여덟 소리는 한 번은 오므리고, 한 번은 벌리니, 一은 一과 같으나 입이 오므라지고, 그 형상은 一과 一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하늘과 땅이 처음 사귀는 뜻을 취한 것이다. 丨는 丨와 같으나 입이 벌어지고, 그 형상은 丨와 丨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하늘과 땅의 작용이 사물에 피어나되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짐을 취한 것이다. 丨는 一과 같으나 입이 오므라지고, 그 형상은 一과 丨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역시 하늘과 땅이 처음 사귀는 뜻을 취한 것이다. 丨는 一과 같으나 입이 벌어지고, 그 형상은 一과 丨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역시 하늘과 땅의 작용이 사물에 피어나되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짐을 뜻함이다. ㅅ는 一과 같으나 丨에서 일어났고, ㅈ는 丨와 같으나 丨에서 일어났고, ㅊ는 丨와 같으나 丨에서 일어났고, ㅋ는 丨와 같으나 丨에서 일어났다.

一 丨 丨 丨는 하늘과 땅에서 시작되었으니 初出이라 하고

ㅅ ㅈ ㅊ ㅋ는 丨에서 일어나서 사람을 겸하니 再出이라 한다. 一 丨 丨 丨가 一起源字인 것은 처음 난 뜻을 취한 것이며 ㅅ ㅈ ㅊ ㅋ가 二起源字인 것은 두 번째 난 뜻을 취한 것이다. 一 丨 ㅅ ㅈ의 원이 위와 밖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나서 陽이 되었기 때문이며, 丨 丨 ㅊ ㅋ의 원이 아래와 안에 있는 것은 땅에서 나서 陰이 되기 때문이다<sup>22)</sup>. 一과 여덟 소리에 모두 꺾어 있는 것은 마치 양이 음을 거느려서 만물을 두루 흐르고 같고, ㅅ ㅈ ㅊ ㅋ가 모두다 사람을 겸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능히 하늘과 땅의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형상을 천, 지, 인에서 취하니 삼재의 이치가 구비되었다. 그러나 삼재는 만물의 선수가 되고, 하늘은 또 삼재의 처음이 되는 것이 마치 一 丨 석자가 여덟 소리의 머리가 되고 一과 또 석자의 ㅈ이 되는 것과 같다. 一과 처음으로 하늘에서 나니 天一生水의 자리이며, 丨가 다음이 되니 天三生木의 자리이다. 丨가 처음으로 땅에서 나니 地二生火의 자리이며, 丨가 다음이 되니 地四生金의 자리이다. ㅅ는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나니 天七成火의 수이며, ㅈ가 다음이 되니 天九成金의 수이다. ㅊ가 두 번째로 땅에서 나니 地六成水의 수이며, ㅋ가 다음이 되니 地八成木의 수이다. 一과 丨는 氣에서 떠나지 못하여 음과 양이 처음으로 교합하므로 오므라지고, 丨와 丨는 음과 양이 고정된 實이므로 벌어진다.

一은 天五生土의 자리이며, 一은 地十成土의 수이다. 丨만이 자리와 수가 없는 것은 대개 사람은 無極의 진리와 음양오행의 正氣가 묘하게 합하여 영긴 존재이니 진실로 일정한 자리와 온전한 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中聲 역시 스스로 陰陽과 五行, 方位, 數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天一生水의 원리로 一 丨 丨 丨로 나열하여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의 오행 상생의 순서로 하였고 또 地二生火의 원리로 ㅅ 一 丨 丨로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의 순서로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一 丨 天地人은 나머지 여덟소리의 머리가 되고 一은 또 一 丨 석자 중의 ㅈ이 되는 이치를 삼아 一 丨을 맨 앞에 세우고 나머지를 뒤로 보내어 一 丨 丨 丨 ㅅ ㅈ ㅊ ㅋ의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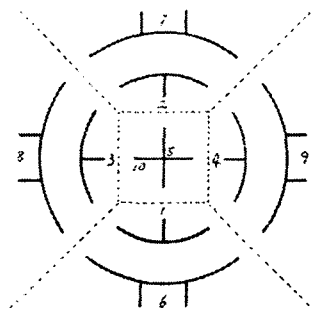


그림 2. 中聲의 四象圓形圖

이와 같이 訓民正音 中聲의 制字原理를 보면 '數理를 가지고

22) 이정호, 訓民正音의 구조원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5.  
이정호, 제삼의 역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반재원, 한글과 천문, 서울, 한배달, 2001. 역음

있다고만 한 初聲과는 달리 中聲은 母音 하나 하나의 數理까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를 도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2], [그림2] 참조).

표 2. 中聲의 數理五行配屬

中聲	·	—		ㄴ	ㄷ	ㄹ	ㅈ	ㅊ	ㅍ	ㅍ	ㅍ
數理	五	十		一	三	二	四	七	九	六	八
五行	土	土		水	木	火	金	火	金	水	木

3. 訓民正音의 易理의 分析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北方 艮(☶)에서 陽이 시작하여 상대편 未(☷)에 이르게 되면 발전하던 陽은 裏面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여 西方의 坎에서 통일 작업이 시작되면서 戊(☷)에서 물이 생겨나서 艮에 이르는 사이 통일 작업이 완성되어 艮(☶)에서 일어난 陽을 기르게 된다. 따라서 天一生水의 ㄴ의 자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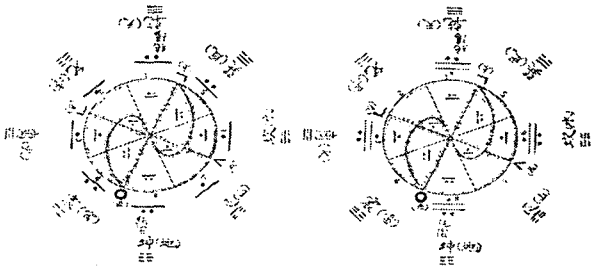


그림 3. 中聲과 太極圖

반대로 西南方의 未에서 陰이 시작되어 艮에 이르게 되면 西北의 표면에서 포위하던 陰은 다시 裏面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여 東方 離에서 분산작업이 일어나 불이 되면서 未에 이르면 陰은 세력을 잃고 잠차 未에서 일어난 陰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地二生火의 ㄷ의 자리가 된다. 따라서 未는 다음으로 天三生木 ㅈ를 기르며 ㄷ는 다음으로 地四生金 ㅈ를 기르게 되는 것이다. 未는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나와 天七成火를 이루며 純陽인 乾의 위치에 해당되고 ㅈ가 다음으로 오니 天九成金을 이루며 ㅈ가 두 번째로 땅에서 이루니 地六成水로 純陰의 위치에 오게 되며 다음으로 ㅈ가 오니 地八成木을 이루고 있다. 未와 ㄷ는 水와 火로서 陰陽이 처음 교합되는 것으로 서로 떨어지지 않으며 未와 목구멍 사이에서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처음으로 사귀를 뜻한다. 未와 ㄷ는 오무리는 것으로 ㅈ ㅈ도 또한 같다. ㅈ와 ㅈ는 陰과 陽의 固定한 質이므로 벌어지는 것을 말하며 ㅈ ㅈ 또한 이와 같다. 따라서 水에 未 ㅈ, 木에 ㅈ ㅈ, 火에 ㅈ ㅈ, 金에 ㅈ ㅈ로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이제 八卦와의 관계를 보면 未卦와 ㅈ卦는 純陽과 純陰으로 乾卦와 坤卦에 해당되며 ㅈ卦는 震卦에 해당되어 陰이 둘, 陽이 하나이며, ㅈ卦는 離卦에 해당되어 陰이 하나, 陽이 하나이며 ㅈ가 ㅈ를 기르게 된다. ㅈ卦는 兌卦에 해당되어 陰이 하나, 陽이 둘이며 ㅈ卦는 巽卦에 해당되어 陰이 하나, 陽이 둘이며 ㅈ卦는 坎卦

에 해당되어 陰이 하나, 陽이 하나이며 ㅈ가 ㅈ를 기르게 된다. 未卦는 艮卦에 해당되어 陰이 둘, 陽이 하나이다. 이상의 中聲과 八卦와의 배속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 3. 中聲과 八卦 배속

中聲	·	—		ㄴ	ㄷ	ㄹ	ㅈ	ㅊ	ㅍ	ㅍ	ㅍ
八卦	☰ 乾	☷ 坤	☵ 坎	☳ 震	☶ 艮	☱ 兌	☲ 離	☴ 巽	☴ 巽	☱ 兌	☰ 乾
性質	父	小男	中男	長男	母	小女	中女	長女			

따라서 太極運動이란 發聲의 根源處인 목구멍(口) 즉 하늘(天)과 소리를 가르는 고동인 혀(舌) 즉 사람(人)이 상호작용하면서 陰陽이 起伏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오행원리로 보면 五運六氣의 消長運動이며 八卦의 象으로 보면 未 未 未 未 未 未 未 未 未 未 未 未가 起伏하는 象이다. 그러나 이러한 象의 본체는 중앙의 未(口)이 未 未 未 未 未 未 未 未의 핵심이니 未(口)은 가장 적으면서도 가장 큰 작용을 하려는 중심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太極의 본체라 하고 또 太極이라 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태극운동이란 陰과 陽의 이치대로 사물이 태동하는 원리와 태동 후의 변화, 발전하는 과정을 나타내어 주는 도형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음의 근본이 되는 未을 없앨 수 없는 까닭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太極圖의 생성이치와 中聲의 생성이치가 둘이 아님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訓民正音 序文에서 中聲을 未 未 未 未 未 未 未 未 未 未 未 未의 순서로 나열한 것도 바로 이 河圖의 原理와 太極과 八卦의 원리를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편, 訓民正音 二十八字는 天文의 二十八宿와 응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未는 天一生水 壬水의 자리이고 方角으로는 亥·子사이이며 그 氣는 危·室에서 발한다. ㄷ는 地二生火 丁火의 자리에 해당되고 方角으로는 午·未 사이이며 그 氣는 柳·鬼에서 발한다. ㅈ는 天三生木 甲木의 자리이고 方角으로는 寅·卯 사이이며 그 氣는 心·尾에서 발한다. ㅈ는 地四生金 辛金의 자리이고 方角으로는 酉·戌 사이이며 그 氣는 婁·胃에서 발한다. 未는 天五生土 戊土의 자리이고 중앙으로 方角에 배당이 없으므로 그 氣는 天門인 戌의 方角인 奎·璧의 성좌에서 발한다. ㅈ는 天七成火 丙火의 자리이고 方角으로는 巳·午의 사이이며 그 氣는 張·翼에서 발한다. ㅈ는 天九成金 庚金의 자리에 해당되고 方角으로는 申·酉 사이이며 그 氣는 昴·畢에서 발한다. ㅈ는 地六成水 癸水의 자리이고 方角으로는 子·丑 사이이며 그 氣는 午·女에서 발한다. ㅈ는 地八成木 乙木의 자리이고 方角으로는 卯·辰 사이이며 그 氣는 亢·搃에서 발한다. 未는 地十成土 己土의 자리이고 중앙으로 方角에 배당이 없으므로 그 氣는 地戶인 巳의 방각인 角·軫의 성좌에서 발한다. ㅈ만이 자리와 수가 없는 것은 대개 사람은 無極의 眞理와 陰陽 五行의 正氣가 묘하게 영긴 존재이니 일정한 자리와 온전한 數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二十八宿 天文 方角圖에 배당 해보면 [그림4]와 같이 中聲의 위치가 정해진다. 그러나, 未의 方位와 數理는 없다고 되어 있지만 未(人)의 本性은 未(天)의 성질과 같다. 즉 사람(未)은 하늘(未)에 뿌리를 박고 사는 존재이므로 天文의 위치에 두루 해당되는



靈의 존재로 본다. 그러므로 箕·斗 사이에서 시작하여 天門의 권역에 두루 해당되는 것이다. ㄹ은 初聲이며 혀의 형상이다.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의 존재처럼 목구멍(하늘)과 입술(땅) 사이에서 혀가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人(人)가 母音으로서 靈의 존재라면 ㄹ(人)은 子音으로서 肉의 존재에 비유되어 ㄹ의 위치는 參·井 사이에서 시작하여 地戶의 권역에 두루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ㅂ ㅍ ㅁ △과 星·房·虛·觜가 남아있다. 星·房·虛는 南方朱雀·東方蒼龍·北方玄武七宿의 각각 중앙에 해당되는 자리로서 星·房·虛에 土의 성질에 해당되는 ㅁ ㅂ ㅍ을 배당시켰다. 따라서 △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觜의 위치에 오게 된다. 이렇게 하여 한글 二十八字를 二十八宿 天文方角圖에 배속시켰다. 그 결과 한글의 二十八字가 二十八宿 天文方角圖에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배당되는 것을 볼 수 있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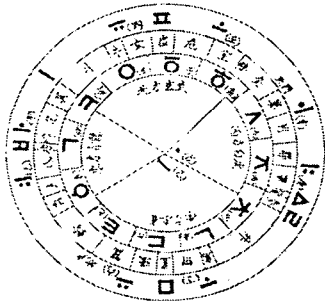


그림 4. 二十八宿 天文方角圖

4. 訓民正音과 儒佛仙의 사상적 융합

훈민정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와 도교를 포용하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세종의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訓民正音의 初聲과 中聲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훈민정음에 내재되어 있는 儒佛仙思想을 통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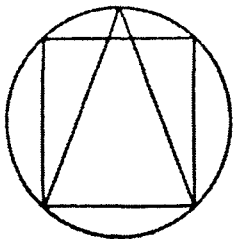


그림 5. 初聲基本音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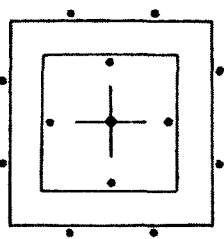


그림 6. 中聲平面圖

우선 [그림5]의 初聲의 基本音 ㅁ ㅂ ㅍ의 平面圖를 살펴보면, 喉音 ㅁ은 水이면서 天이므로 외곽에서 天圓을 나타내고, 牙音 ㅂ은 水生木이므로 그 다음에 있고, 舌音 ㅍ은 木生火이므로

또 그 다음에 있다. 唇音 ㅍ은 火生土이므로 ㅂ과 ㅍ의 다음에 그 합체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곧 地方을 의미한다. 齒音 ㅍ은 土生金이라 그 다음에 있고 金이면서 사람이므로 머리를 天에 두고 발을 地에 두어 頂天立地의 象을 보이고 있어서 人立을 表示한다. 初聲基本音은 ㅂ과 ㅍ이 합하여 ㅍ을 이루고 있으므로 五音이 ㅁㅍㅍ의 三音으로 축약되어 있어서 三五錯綜의 원리가 나타난다.

한편 [그림6]의 中聲 十一音의 平面圖를 살펴보면, 中聲의 平面圖는 河圖와 흡사한데, 點으로 된 字가 아홉이고, 畫으로 된 字가 둘이니, 中聲 平面圖에서 九二錯綜의 原理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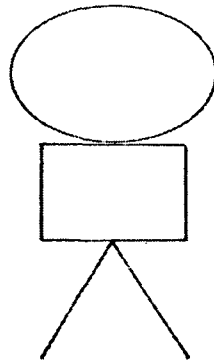


그림 7. 初聲基本音立體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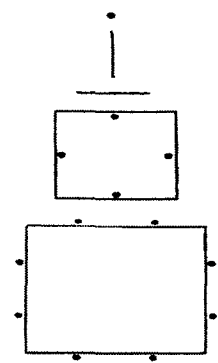


그림 8. 中聲立體圖

그리고 [그림7] 初聲基本音의 立體圖를 살펴보면, ㅁ은 머리(首)의 象, 天道. 天이 地를 包하여 圓還하니 影이고, 그 속에 神明이 모여 있음을 보여주고, ㅍ은 배(腹)의 象, 地方. 地가 天을 載하여 方正하니 體이고, 그 속에 理氣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며, ㅍ은 다리(脚)의 象, 人立. 人이 乾坤에 中立하여 위로는 天時를 律하고 아래로는 水土를 糞하여 三才를 겸하여 두 다리로 디었으니 人道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마치 童子의 象과도 흡사하고, 平面圖와 같이 三五錯綜의 원리가 있다.

또한 [그림8] 中聲立體圖를 살펴보면, 상부는 蓮寶臺와 같고, 중부는 塔身과 같고, 하부는 基壇과 같다. ㅍ로 된 字가 아홉이고 劃으로 된 字가 둘이니 九二錯綜의 뜻이 있으며, 이와 같은 中聲立體圖는 一名 '正音塔'이며 혹은 '觀音塔'이라고도 한다.

결론적으로 初聲 基本音의 立體圖를 童子像으로 보았다. 이 童子는 '회순하고 공순한 童蒙은 길하다'는 童子로서 하늘이 기리고 世人이 사랑하는,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순진무구한 소년인 것이다. 소년은 周易으로 말하면 '艮'이다. 艮에는 '만물을 마치고 만물을 비롯하는' 원리와 아울러 '말씀(道)을 艮에서 이룬다' 하여 만물을 成道시키는 원리도 있는 것이다.

初聲의 童子像은 周易의 伏羲八卦圖와 같다. 아직 어려서 갓 난 대로의 모습이다. '太極이 兩儀를 낳은'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점차 자라서 '兩儀가 四象을 낳고 四象이 八卦를 낳는' 동안에 '이미 順하고 이미 逆하여 능히 마치고 능히 비롯하여' 四象八卦인 文王의 九宮卦圖를 거쳐서 최후에 一夫의 十數卦圖로 이루어, 十數易이 萬世歷이 되는 때에 비로소 '천하의 내 할 일을 다 마치는' 것이요, 艮소년의 사명도 여기서 다하게 되는 것

23) 반재원, 한글과 천문, 서울, 한배달, 2001.

이다. 이 총점에 도달하는 과정과 그 최후 승리의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中聲 十一音의 立體圖이요, 일명 正音塔인 것이다. 탑의 하부 즉 基壇은 天地와 天人 再交로서, 그 속에는 天地人 三才의 기본원리가 들어있고, 또 '天地의 작용이 사물에 발현 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룬다'는 작용원칙이 있는 것이다. 初聲 童子 良少年은 이 원리와 원칙에 의하여 格致誠正과 克己復禮와 爲己之學과 爲人之道를 다하여 드디어 '至善에 그치는'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수련을 다한다.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탑의 중부 즉 塔身이다. 이와 같이 外學과 內修의 과정을 통하여 '강건하고 독실하고 輝光하여 날로 그 덕이 새로워지는' 大畜의 공부를 다한 初聲 동자는 일조에 豁然貫通하니 그 빛이 우주에 충만하여 '하늘 길을 메었으니 도가 크게 행한다!' 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 광경을 보여 주는 것이 탑의 최상부 즉 蓮寶臺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하늘이니 광명을 상징하고, 그 하늘을 이고 빛을 발하는 것이 이니 그 이가 바로 위에서 말한 天道科程의 순례를 다 마치고 一朝에 豁然貫通한 初聲동자 良소년이며, 그 소년을 싣고 있는 것이 이니 곧 우리의 대지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中聲立體道는 正音塔인 것이다. 正音이 아니고는 세울 수 없는 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正音塔을 자세히 살펴보면, 正音塔은 바로 觀音塔이기도 하다. 관세음보살은 흔히 十一面으로 나타난다. 관세음보살은 얼굴과 머리가 十一面이지만 正音塔은 그 전신이 十一面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訓民正音은 童子象과 觀音塔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童子象이 儒敎的이라고 한다면 觀音塔은 佛敎的이라고 하겠다. 세종대왕의 訓民正音 속에 儒敎的인 요소와 佛敎的인 요소가 들어있음은 더욱 분명한 일이다.

### 5. 訓民正音의 한의학적 운용

上述한 바와 같이 訓民正音의 창제원리에 있어서 初聲은 發聲器官을 본따 地法을 따르고 中聲은 三才의 뜻을 따라 天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訓民正音의 用法에 있어서 初聲은 發聲의 처음틀로서 나아가갈 區劃을 설정하고 中聲은 설정된 初聲의 구체적인 작용점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訓民正音의 用法에 있어서는 初聲이 天法을 따르게 되고, 中聲이 地法을 따르게 된다.

初聲의 用法은 天法을 따르게 되는데 天法은 간단 명료하여 마치 干支의 十干이 단순 명료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初聲 創製原理의 틀과 같이 五行에 배속되는데 ㄱ ㅋ이 木에 배속되고, ㄴ ㄷ ㄹ이 火에 배속되고, ㄴ ㅎ이 土에 배속되고, ㅅ ㅆ ㅈ이 金에 배속되고, ㅁ ㅂ ㅍ이 水에 배속된다. 이 때 創製原理와 用法에 있어서 土와 水가 서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初聲의 가장 뿌리가 되는 喉音과 初聲의 가장 걸음이 되는 肩音이 水土同胞의 원리와 체음의 관계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는 이치인 것으로 사료된다. 中聲의 用法은 地法을 따르게 되는데 地法은 복잡 단단하여 마치 干支의 十二地支가 地藏干으로 말미암아 변화 무쌍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中聲의 사용법과 작용법에 대한 예는 일정한 규칙이 없고 사용시의 구체적인 환경이나 사용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듯 하다.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朴相

和는 詠歌<sup>24)</sup>에 대한 연구에서 그 배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sup>25)</sup>.

표 4. 詠歌의 원리

出하는 臟腑	발성 방법	모음의 발성과 방법	오음
脾	입을 다물고 通하는 소리	음	宮
肺	입을 벌리고 吐하는 소리	아	商
肝	잇몸을 벌려 입술을 숫아오르게 하는 소리	어	角
心	입술을 열어 내는 소리	이	徵
腎	잇몸을 약간 벌리고 입술을 모으는 소리	우	羽

또한 요가에서 사용하는 음운을 이용한 만트라<sup>26)</sup>와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六字訣<sup>27)</sup> 및 한국의 李<sup>29)</sup>, 秦國의 만탁 차아<sup>30)</sup> 등의 氣功 연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요가에서 각 母音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母音의 종류	영향을 미치는 해부학적 위치
이-이-	(머리속에 진동하여) 뇌하수체·송과선·두개골내 모든 부분
에-에-	인후·기관·갑상선·부갑상선
아-아-	폐의 윗부분
요-요-	中胸部
오-오-	폐의 아랫부분·심장·간장·위
와-와-	간장·횡격막·위
위-위-	심장
mm - oo - mm	심장

표 6. 六字訣의 內容 整理

臟腑	氣功	效果
肝	嘘[xu](취)-	눈을 밝게 하고 간을 북돋는다.
心	呵[ke](크)-	심화가 스스로 안정된다.
肺	嚀[ssi](씨)-	폐금을 안정되게 수렴시켜 건조한 것을 적신다.
腎	嘘[chui](취)-	신수를 안정시킨다.
三焦	嘻[xi](시)-	삼초를 조리하고 번열을 없앤다.
脾	呼[hu](후)-	비위가 좋아져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

표 7. 音聲振動法

모음	내용과 효과
음-	오행의 기운이 모두 담겨져 있고 작게는 뇌, 크게는 몸 전체를 진동시킨다. 上丹田을 열도록 도와준다.
아-	내부의 기운이 거침없이 빠져나오며 心臟의 火기운을 맑게 한다.
아-	가슴, 옆구리를 지나 척추까지 진동시켜 胃와 肝을 좋게 한다.
우-	아랫배에 기운이 쌓여 하단전과 腎臟, 膀胱을 좋게 한다.
하-	肺
어-	가슴 아랫쪽
쉬-	膀胱(소변 볼 때의 소리)
쓰-	腎臟

24) 詠歌 : 넓은 의미에서 嘯歌라는 의미가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애도하는 노래의 후렴구로 사용되었던 노래의 명칭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음, 아, 어, 이, 우의 다섯소리로만 불리어진다  
 25) 박상화, 正易을 바탕으로 한 詠歌와 平和遊戲, 서울, 우성문화사, 1981 pp. 112-116.  
 26) 정태현, 요가의 신비, 서울, 백산출판사, 1993, pp. 124-126.  
 27) 六字訣은 孫思邈의 『衛生歌』에 상세히 기술되었고, 이미 秦漢時代 『呂氏春秋』에서부터 언급되어 왔다.  
 28) 張和, 中國氣功學, 五洲出版社, 1993, p. 235.  
 29) 이승헌, 뇌호흡, 서울, 한문화, 1997, pp. 126-130.  
 30) 만탁 차아, 활력증강건강법, 서울, 하남출판사, 1995, pp. 79-145.

표 8. 治癒六聲

소리	臟腑	몸의 부위	감각기관
스으(ss)	肺·大腸	가슴·팔안쪽·검지	코·피부
우우(woo)	腎·膀胱	발의 측면·다리 안쪽·가슴	귀·뼈
시이(shh)	肝·膽	다리 안쪽·살·횡격막·늑골	눈·눈물
호오(haww)	心·小腸	겨드랑이·팔 안쪽	혀·언변
후우(whoo)	脾·胃	위장의 뒤쪽	입·맛
히(thee)	三焦	상·중·하초로 나뉘어 온도와 감정을 조절한다.	

## 결 론

訓民正音은 왕조교체와 문화번혁의 시대적 상황하에 儒敎와 佛敎의 철학적 융합을 통해 정치적 문화적 조화를 이루려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으며, 당시의 고도로 세밀화된 北宋 儒敎哲學인 易理論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訓民正音의 글자의 형태는 기존에 있던 고대문자(특히 加臨多)의 영향을 받았으나, 철학적 바탕 아래 철저하게 정립되어 재창제되었다.

初聲은 五行의 體 속에 〇, ㄱ, ㄷ의 三才를 用하고 있으며, 牙舌脣齒喉音이 각각 木火土金水에 해당되고, 〇이 天, ㄱ이 地, ㄷ이 人에 해당된다. 中聲은 ㆍ ㅡ ㅣ의 三才의 體 속에 ㄴ(水), ㄷ(木), ㅍ(火), ㅊ(金), ㅍ(五土), ㅍ(十土)의 五行을 用하고 있으며, 初出字와 再出字는 각각 八卦에 배속이 된다. 初聲 17字와 中聲 11字는 合이 28字로 天文의 28數에 배속된다. 初聲의 〇, ㄱ, ㄷ은 天地人으로 修身하여 平天下하려는 儒敎의 童子象이며, 中聲의 11字는 天地人의 상호조화를 통해 道를 이루고 佛性을 깨치려는 佛敎의 觀音塔의 象이 되니, 訓民正音은 佛敎와 儒敎의 융합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初聲과 中聲은 創製된 원리와 달리 작용면에 있어서 初聲이 天이 되고 中聲이 地가 되는데 이는 初

聲이 氣는 약하지만 구체적인 작용의 범주를 정하기 시작하는 역할을 하고, 中聲은 初聲이 시작한 에너지를 강력하게 이끌어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初聲은 작용면에 있어서 水와 土가 바뀌게 되는데 이는 體와 用에 있어서 地法의 水土同胞를 따르기 때문이요, 中聲은 天法을 따르므로 쓰임에 있어서도 일정한 틀이 없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 참고문헌

1. 沈小喜, 『皇極經世書·律呂聲音』와 訓民正音의 正音觀 研究, 대한음성학회 제3회 음성학술대회, 서울, 1996.
2. 訓民正音 解例本.
3. 김석득, 한국어연구사(상), 연세대출판부, 서울, 1975.
4. 반재원, 한글과 천문, 한배달, 서울, 2001.
5.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서울, 1987.
6. 成俔, 懷齊叢話, 대양서적, 서울, 1978.
7. 이익, 성호사설, 문광서림, 서울, 1958.
8. 최현배, 고친 한글갈, 정음사, 서울, 1971.
9. 권진규, 고대조선문의 유무, 민정서관, 서울, 1977.
10. 이정호, 訓民正音의 구조원리, 아세아문화사, 서울, 1975.
11. 이정호, 제삼의 역학, 아세아문화사, 서울, 1992.
12. 박상화, 正易을 바탕으로 한 詠歌와 平和遊戲, 우성문화사, 서울, 1981.
13. 정태혁, 요가의 신비, 백산출판사, 서울, 1993.
14. 張和, 中國氣功學, 五州出版社, 1993.
15. 이승헌, 뇌호흡, 한문화, 서울, 1997.
16. 만탁 치아, 활력증강건강법, 하남출판사, 서울, 1995.